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11월 2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아주통상과 양기욱 과장(02-2110-4621), 김지연 사무관(02-2110-4627)

한-베 공동위원회 및 인큐베이터 파크 착공식 개최

- 원전, FTA 등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방문 성과 가시화 -
- 인큐베이터 파크로 새로운 신흥국 협력모델 선보여 -

1 제4차 한-베 공동위원회 개최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**은 11.23(토) 오후 베트남 껀터시에서 베트남 **산업무역부 「부 휘 황」 장관**과 **제4차 한-베 공동위원회를 개최**함. (*참고1 : 한-베 공동위원회 개요)

○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 9월 **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방문의 후속 조치**로서 **무역, 원전, 에너지·자원, 산업기술** 등 4개 분과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 (*참고2 : 제4차 한-베 공동위원회 주요의제)

정상성명 주요 내용 (경제분야)

- **(무역)** 2020년까지 무역액 700억불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
  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
  균형된 무역확대를 위한 조치 모색 및 유통물류 분야 협력 강화
- **(원전)**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이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베트남에서의 원전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
- **(에너지·자원)** 베트남 남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, 융깟 석유비축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협력
- **(산업기술)** 부품소재 공동 R&D, 제조업 기술인력 양성, 인큐베이터파크 건설 등이 양국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

□ **(무역)** 양국 장관은 '2020년까지 양국 교역액 700억불'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FTA 체결이 매우 중요하며 **내년 중 한-베 FTA를 체결하기 위해 협상 속도를 더욱 가속화**하기로 함

○ 또한 양측은 상시협력채널 구축, 기업애로 해소지원 등을 통해 **유통물류 분야 협력**을 강화하기로 하고, 2014년 베트남 엑스포에서 **'한-베 창조협력관'**을 설치키로 함

□ **(원전건설)** 지난 6월부터 시작된 **예비타당성조사**(Pre-F/S)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, **향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원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**하기로 함 (*참고3: 원전협력 동향)

* 베트남은 '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도입할 계획으로 우리나라는 원전 2기(각 1백만 KW 이상)에 대한 사업권 획득 추진중

* 향후절차 : 예비타당성 조사('14년말) → 베 국회 승인 → 부지확정 → 정부간 협정(필요시) → 본타당성조사 → 상업계약

○ 또한, 이번 공동위에서는 **원전 전문인력 양성 사업, 원전건설 후보부지 베트남 지방정부 초청 사업** 등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는데, 이를 통해 베트남내 한국형 원전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여 **한국형 원전 수주에 우호적인 기반**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

□ **(에너지·자원)** 양측은 지난 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대로 **롱푸3, 붕앙3, 응이손2, 남딘** 등 한국 기업이 참여중인 **약 100억불 규모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 사업**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함

○ 이밖에 우리측은 **융깟 석유저장시설 건설사업, 알루미늄 제련공장 건설사업** 등에 대해 베트남측의 협조를 요청했고, 베트남은 **희토류·티타늄 개발 및 광해 방지**와 관련해 한국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함

□ **(산업기술)** 베트남측은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개최된 **소재부품 기술이전 설명회**(11.22, 하노이)에 사의를 표했고, 양국은 그간 **공동연구개발 사업, 산업기술인력 양성 사업**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을 평가하며 **양국의 기술협력을 더욱 강화**해 나가기로 함

② 인큐베이터 파크 착공식 개최

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**껀터시** 짜녹(Tra Noc) 산업단지에서 **베트남「부 반 닝」부총리**,「부 휘 황」 산업무역부 장관 등 양국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**한-베 인큐베이터 파크 착공식**을 개최함.

인큐베이터 파크 개요 (상세내용 참고4)

- 사업부지 : 남부 껀터시(베트남「응웬 떤 중」총리가 직접 지정)
- 사업규모 : 본부동, R&D 및 시험생산동 등 2개동 건물(연면적 13,000㎡)
- 사업내용 : 건물 및 장비 등 시설구축,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등
- 사업기간 및 예산 : '12.6월 ~ '15.12월, 180억원 (ODA 사업)

껀터시 소개 (참고5 : 껀터시 지도)

- 베트남 5대 도시 중 하나로 호치민 남서쪽에 위치한 메콩델타 최대 도시(120만명)
  * 5대 도시: 하노이, 호치민, 하이퐁, 다낭, 껀터
- 베트남 최대의 쌀 생산지(총 생산의 50%, 연2천3백만톤, 한국(400만톤)의 6배)
- 메콩강 기반의 수산양식이 활발(세계 메기생산의 90%)

□ 인큐베이터 파크는 **한국형 테크노파크의 해외 첫 번째 사례**로서 한국과 베트남의 **산·학·연 협력**을 통해 **'혁신 클러스터'**를 조성, **양국 산업협력의 거점**으로 활용할 계획

○ 베트남은 껀터시의 자원을 활용하여 **쌀·수산물 가공 및 농기계 부품 산업**을 발전시킴으로써 **1차 산업의 고부가치화**를 추진하고 **메콩 델타 지역 경제의 활성화** 가능

○ 한국은 인큐베이터 파크를 거점으로 관련 분야 **중소·중견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 및 경쟁력 제고** 기대

농수산 및 농기계 산업 기대 효과

- (쌀가공) △고품질 가공시 가격 2배 상승(0.4→0.8$/kg) △수출상품화(쌀국수, 가공밥 등)시 가격 50배 상승(0.4→20$/kg) ⇒ 총 10배이상(24→280억불) 수출 증대
- (농기계부품) 연 3,000대 생산수준의 조립공장 건설시 연 740억원 매출 예상

□ 인큐베이터 파크는 **신흥국의 산업협력 수요에 부응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기여**하는 **산업형 ODA 사업**으로서 인프라 건설이나 사회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ODA 사업과는 차별화되는 **새로운 형태의 신흥국 협력모델**이 될 것으로 기대

□ 윤상직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"**인큐베이터 파크는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**"이라고 강조하며, "인큐베이터 파크의 성공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"을 당부함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 김지연 사무관(☎ 02-2110-462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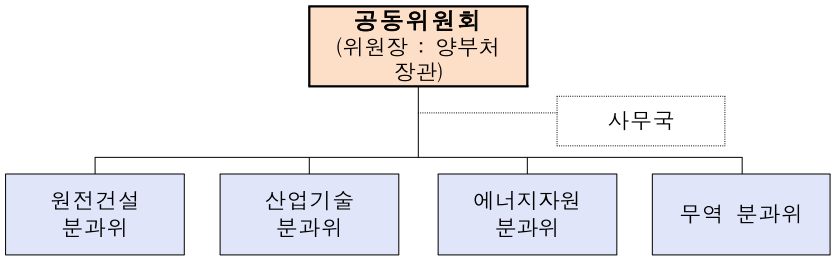
참고 1 한-베 공동위원회 개요

□ 설치 근거

○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원전 협력 및 산업기술, 에너지자원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 체결 ('11.5)

□ 구성 및 운영

○ 제1차 공동위 의결사항('11.7)에 따라 장관급 공동위와 국장급 분과위를 각각 구성·운영



□ 경과

○ '11.7.7(서울)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

○ '11.10.19(하노이) 제2차 공동위원회 개최

○ '12.3.26(서울)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

□ 주요 활동

○ 1·2차 공동위를 통해 원전개발 및 산업기술 분야 협력진전

○ 2차 공동위시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베트남 파견

○ 3차 공동위시 원전 약정 및 산업기술 MOU체결

참고 2 제4차 한-베 공동위원회 주요 의제

분과	의제명
무역	▪ 한-베트남 FTA 협상 추진 ▪ 한-베트남 교역 활성화 : 무역발전 전략 공동연구, 구매사절단 정례화, 베트남 엑스포 한국관내 "한-베 창조협력관" 개설 등 ▪ 유통물류 협력 : 상시협력채널 구축, 기업애로 해소 ▪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강화 ▪ 무역구제 분야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
원전개발	▪ 베트남 원전건설을 위한 첫 공식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▪ 베트남 원전 전문인력 양성사업 ▪ 제3원전 후보부지 지방 정부 초청 사업
에너지 자원	▪ 롱푸 3 BOT 석탄화력발전사업 ▪ 붕앙 3 석탄화력발전사업 ▪ 응이손2 BOT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▪ 남딘 BOT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▪ 융깟 지하석유비축사업 ▪ 알루미늄 제련공장 건설
산업기술	▪ 한-베 소재부품 협력사업 : 기술이전 설명회, 공동 R&D, 소재부품 전문인력 양성 ▪ 한-베 산업기술 인력양성사업 ▪ 한-베 인큐베이터파크

참고 3 원전 관련 협력 동향

□ 원전 사업 개요

○ 베트남은 '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도입할 계획으로(각 1,000㎿ 이상), 우리나라는 2기(부지 미정)에 대한 사업권 획득을 추진 중

- 러·일은 사실상 수주를 확정하고 본타당성조사 수행

* 제1원전(러시아, 2기), 제2원전(일본, 2기), 제3원전(한국 참여중, 2기)

□ 진행 현황

일 시	주요 내용
'11.11월	베트남 원전건설 추진을 위한 **양국 정상간 공동선언**
'12.3월	베트남 제3원전의 예비타당성조사(Pre-FS)를 위해 양국 장관이 **'정부간 약정' 체결**
'13.6월	제5차 원전 분과위를 개최하여 양국 전력공사간 **Pre-FS 협약 체결**
'13.7월	Pre-FS의 일환으로 한-베 공동 현지 부지조사, 지방정부 면담, 전문가회의 개최
'13.9월	베트남 원전건설의 지속 협력을 위한 **양국 정상간 공동선언**

□ 향후 계획

○ **'14년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**하고, 베트남 국회 승인 이후 정부간 협정(필요시)을 체결 추진

* **향후절차 :** Pre-FS('14년말) → 베 정부 및 국회 승인 → 부지확정 → 정부간협정 → 본타당성조사 → 상업계약

참고 4 베트남 껀터시 인큐베이터 파크 개요

1 개 요

○ 베트남의 **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**하고 **양국 산업협력 거점**으로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 남부 껀터市에 인큐베이터 파크 조성

• 중점산업: 농수산식품가공, 농기계 • 수행기관: 【베】 껀터시 인민위원회 【한】 KIAT(출연기관), 생기원(주관기관) • 사업내용: ① 건물 및 장비 등 시설구축 ②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등 협력사업	• 사업부지: 남부 껀터시(베 총리 지정) • 사업규모: 2개동(연면적 13,000㎡) • 사업기간: '12.6월 ~ '15.12월 • 사업예산: 총사업비 180억원)

2 추진경과

○ '12.3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에 장관급 MOU 체결

○ '12.10월 (한)지경부-(베)산업무역부간 국장급 이행계획 체결

○ '12.11월 세부사항에 관한 (한)생기원-(베)껀터시 인민위원회간 ROD 체결

3 추진방향

베트남의 **산업협력 수요**에 부응하면서 **우리기업의 해외진출**에도 기여하여 **상생형 기술협력**을 추구하는 산업부式 ODA 성공사례로 개발

○ 양국 산업 협력의 거점으로 '혁신클러스터'*(한국형 테크노파크)를 조성, **창업보육, 인력양성 및 기술협력**을 통한 **윈-윈의 협력 모델** 창출

* 산·학·연이 집적되어 유기적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혁신역량을 확보한 산업집적지

- **(베트남)** 껀터시가 선정한 쌀·수산물 가공 및 농기계부품산업의 집중 육성*을 통해 **1차산품의 고부가가치화** 및 **기술기업 육성기반 마련**

* 1차 개발대상지(무상, 4.5ha)에 쌀·수산물 가공 및 농기계부품 기업 유치 및 시범사업 실시(기술 인력 양성, 적정기술 이전, 상품화·품질인증 등)

- **(한국)** 인큐베이터 파크 부지內 우리기업 입주 및 진출시 필요한 시범·연구 사업* 실시를 통해 **한국기업 진출 거점으로 활용**

* 현지대학·연구소와 연계하여 국산농기계 현지화, 농수산품 품질 개선 및 인증제도 등 추진

4 기대효과

○ **(베트남)**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에 요구되는 **자생적 기술혁신역량 확보**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른 **메콩델타 지역경제 활성화**

- **기술혁신형 지역기업 육성** 및 **기술인력 배출** 등 부품산업 기반 구축

* 한국형 테크노파크 경험전수 · 기술이전을 통해 빠른 속도로 지역산업 육성기반 마련 가능

- **지역경제수입 · 해외수출 증가** 및 관련 산업의 **고용창출 효과**

* (쌀가공) △고품질로 가공시 가격 2배상승(0.4→0.8$/kg) △수출상품화(쌀국수, 쌀종이, 가공밥 등)시 가격 50배 상승(0.4→20$/kg) △총 10배이상(24→280억불) 수출 증대 예상
(농기계부품) 연 3,000대 생산수준의 조립공장 건설시 연 740억원 매출 예상

○ **(한국) 중소·중견기업의 베트남 진출** 및 **아세안 시장 교두보** 마련

- 현지 생산 거점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, 우수 현지기업과의 공동 R&D, 저임노동력 확보 등 **우리 중소 기술기업의 경쟁력 강화**

- 양국 협력 프로그램*을 통한 **아세안 등 제3국 공동진출 거점**으로 활용

* 공동R&D, 기술이전, TP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기술협력 파트너십 구축

5 향후계획

○ '13.11월 착공(제4차 한-베트남 공동위원회 계기) → '15년초 완공 → '15년 장비제공, 시범사업 실시

○ 국내기업 및 베트남 旣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 및 홍보 지속

<붙임>

□ 건설 동 : 본부동, R&D 및 시험생산동 등 2개동 건물

□ 규모 및 용도 : 연면적 13,000m^2 교육연구시설



동 명	규모	입주기관 및 시설
본부동(4층)	▸철근콘크리트 조 ▸연면적 4800m^2 ▸1200m^2 ×4개층	▸운영기관, 연구소, 기업, 기업지원기관 ▸창업보육공간, 세미나실, 사무공간
R&D 및 시험생산동(2층)	▸철골조, 외장판넬 ▸연면적 8200m^2 ▸4100m^2 ×2개층	▸시제품 생산시설, 시험·인증 장비시설



[그 림] 인큐베이터 파크 단지 활용 계획

참고 5 베트남 껀터(Can Tho)市 지도



참고 6 한-베트남 교역현황

□ 지난 '92년 한·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**양국간 교역규모는 40배 이상 성장**하여 '13.10월 베트남은 **아세안 제2위 교역 대상국**

* '13.10월 아세안 교역규모 순위(억불): ①싱가포르(277.2), ②**베(234.5)** ③인니(208.3)

○ '13.10월 한국의 **對베 수출액은 175.4억불**(전년대비 35.8% 증가), **수입액은 59.1억불**(전년대비 25.5% 증가)으로, 116.2**억불 흑자** 기록

* 전통적으로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국임

< 한-베트남 연도별 교역 현황 >

(단위 : 억불, 전년동기대비 %)

구 분	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.10
수 출	금액	34.3	39.3	57.6	78.0	71.5	96.5	134.6	159.5	175.4
	증가율	5.4	14.5	46.7	35.5	-8.4	35.0	39.5	18.4	35.8
수 입	금액	6.9	9.3	13.9	20.4	23.7	33.3	50.8	57.2	59.1
	증가율	3.1	33.3	50.5	46.4	16.3	40.5	52.6	12.5	25.5
무역수지		27.4	30.0	43.7	57.7	47.8	63.2	83.8	102.3	116.2

□ **수출 품목**은 **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생산과 관련 부품, 소재** 위주, **수입 품목**은 자원 및 섬유·신발 등 **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역수입** 위주

○ '12년 수출은 반도체, 무선통신기기,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합성수지, 철강판 등 5대 품목이 對베트남 수출의 약 37% 차지

○ 동 기간 5대 수입 품목은 원유, 의류, 신발, 목재류, 기타석유제품이며, 對베트남 수입의 약 47% 차지

< 한-베트남 품목별 교역현황 >

(단위 : 백만불, 전년동기대비%)

순위	수출('13.10월)			수입('13.10월)		
	품목명	금액	증가율	품목명	금액	증가율
1	반도체	2,540	42.5	의류	1,356	48.3
2	무선통신기기	1,341	105.8	원유	841	25.7
3	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	985	80.8	신발	326	27.3
4	합성수지	943	29.2	목재류	187	36.2
5	기구부품	810	98.1	기타섬유제품	180	26.0
	총계	**17,541**	**35.8**	**총계**	**5,916**	**25.5**

참고 7 한-베트남 투자현황

□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지속 확대되어 **현재 3,352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(약 2,700여개 한국기업), 한국은 일본에 이은 제4위 투자국**

* ①일본(1,990건, 327억불) ②싱가포르(1,164건, 283억불) ③대만(2,256건, 274억불) **④한국(3,352건, 255억불)** ('13년 6월 누계(신고)기준, **베측(MPI)통계**)

○ **베트남은** 미국, 중국, 홍콩에 이어 **한국의 제4위 투자대상국***임과 동시에 **아세안 최대 투자대상국**으로 '13.3월 누계 **156억불 투자**

* 한국의 투자순위('13.3월 누계(신고)기준, 수은) : ①(미국) 21,947건, 650억불, ②(중국) 46,998건, 575억불, ③(홍콩) 4,271건, 177억불 **④(베트남) 6,993건, 156억불**

□ 제조업 투자는 베트남 경제 발전에 따라 전기·전자 분야 등으로 고도화

* 제조업종별 투자 비중 변화('92~'00→'06~'10)p: 경공업 36.4% → 26.1%
1차금속 및 전기·전자 등 30.4% → 36.8%

○ 對베 5대 투자분야는 **제조업**(67.0억불), **광업**(32.9불), **부동산업·임대업**(24.8억불), **건설업**(11.5억불), **금융·보험업**(6.1억불) 순('13.3월 누계(신고), 수은)

* 주요투자기업 : 삼성전자, LG전자, 두산중공업, 현대중공업, SK에너지, GS건설, 한국전력공사, 포스코, 삼성물산, 경남건설 등

□ 한편 **베트남의 對韓 투자는 총 102건, 총 13.4백 만불**(13.6월 누계(신고)) **로서 건수나 금액면에서 미미한 수준**임

○ 베트남의 對한국 투자는 '05년 1.1백만불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가 '11년에 투자가 급증하여 5.0백만불을 기록한 이후 다시 감소

* **투자추이**(단위:백만불): ('07)0.5→('08)0.4→('09)1.0→('10)0.8→('11)5.0→('12)1.7→('13.3)1.6

< 한·베트남 연도별 투자 현황(신고기준) >

(단위 : 백만불, 건)

구 분	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.	누계*
對베	금액	390	1,793	2,780	1,913	964	2,147	1,511	913	262	**15,570**
투자	건수	379	572	839	826	643	763	723	737	199	**6,993**
對韓	금액	1.1	0.4	0.5	0.4	1.0	0.8	5.0	1.7	1.6	**13.4**
투자	건수	3	5	7	9	13	15	15	14	5	**102**

* 누계 : 對韓 투자 ('62년-'13.6월), 對베트남 투자 ('68년-'13.3월)